

우수상 수상작

저마다의 성공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이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러움을 사는 삶이라고 칭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만족한 삶을 살 때 그것을 성공이라 칭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모든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은 전부 다를 것이다. 개개인이 존재하는 만큼, 성공에 대한 정의도 전부 다르다. 그리고 나의 성공은 내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나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얻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대학원에 입학하고서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몇 개월을 헤맸던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이 잘 모르겠고, 학부와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만 인지하고 있었다. 실험이 즐겁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때의 내겐 막막하기만 했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와 같은 간단한 것조차 의문을 지닐 정도로 모든 것이 불투명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실험실에서의 생활이 마찰없이 조용히 흘러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히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때로는 실험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감을 겪기도 하였다. 배지를 제작하는 것 외에 직접 결과를 판단해야 하는 일은 나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지쳐버려 그저 학부생 때와 비슷하게 아침에 나오고 저녁이 되었을 때 돌아가는 삶을 보내고 있었다. 어쩌면 이때의 나는 대학원을 위해 학교를 다시 나온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기도 하다. 실험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고, 왜 실패한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전하기보다 실패했으니 다시 해보고 안되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저 석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인지 의문도 가졌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치 길가에 존재하는 수많은 돌처럼 어영부영 살아가기만 하는 인생을 보내야 하는가. 강원대는 국립대로 학비가 낮은 편에 속하나, 아무리 그래도 돈을 내면서까지 공부하고자 진학한 것인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 라는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 나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력감, 패배감이 지속되자 반발심이란 감정도 생겨났다. 그리고 나의 목표가 잡히기 시작했다. 정작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짧은 석사 2년 동안 실험에 열중해 보면 어떨까. 크게 무언가가 바뀌진 않았으나, 마음가짐이 바뀐 것만으로도 한 보 정진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고민을 끝내고서는 우선 실험에 열중하였다. 실험을 더욱 많이 도전하고 시도하였고, 실패도 그만큼 많이 겪게 되었다. Band가 나타나지 않거나 원하던 size에 나타나지 않으면 PCR을 온갖 조건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시도했다. 그럼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주저앉지 않고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보며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거나 결론을 도출해내어 다른 실험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이란 것을 맛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오류와 실수, 실패가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의 쾌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실험이 즐거워졌다. 나중에는 PCR이 거의 성공하였으며, 학부생 동기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될 정도로 실력이란 것이 쌓였다. 실험이 다음 스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며 southern blot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mutant를 만들어내고 wild type과 다른 점을 표현형을 통해 알아보면서 재미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도 이어졌다. 개강 후 세미나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며칠을 걸쳐가며 계속해서 이론을 파고들었다.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무언가를 몰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논문의 내용이 이해조차 가지 않았다. 번역기를 사용해도 난감함을 느낄뿐더러, 특히 영어로 쓰여있는 것에 순간적인 거부감도 들었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번역해가며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보고 pathway를 찾아보면서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특정 조건에서 특정 물질이 부족할 때 작동하게 되는 기작이었다. 세부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헤매고 내용과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고민한 적도 있었다. 재료와방법을 설명하는 항목에서는 도대체 이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어려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아! 라는 탄성이 나오게 되었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 모두 이러한 내용을 궁금해하며 질문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동질감도 생겨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든 시간이 즐겁다고 느껴지게 되었다. 깊이 파고 파게 될수록 빙산의 일각을 넘어서서 파헤치게 되는 느낌이었다. 때로는 기초로 돌아가 RNA와 DNA의 차이를 보고, RNA의 구조를 공부하거나 단백질 번역 과정을 알아볼 때도 있었다. 이렇게 파고들어서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논문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겉으로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나,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미시적 수준에서 봐야지 거시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학문에 통용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가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다. 희열과 쾌감이 이곳에 있었다. 동시에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모든 분야는 저마다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그 분야는 깊게 파고들수록, 아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며 그만큼 그 세계를 넓게 보게 된다.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진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원 생활 초반에 우울감을 느꼈었다. 그렇기에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해 파고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적응의 기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연속으로 맛보게 되면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지 않아진다. 재미를 느끼기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도전하기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면 침몰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라앉은 상태로 대학원 생활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나 또한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갖가지 실험이 실패하였을 때 그저 하루하루를 빨리 보내고 싶기만 했었다. 실험뿐만이 아닌, 식물조차 키워도 시들거나 응애가 생겨 잎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다. 선배가 준비한 실험을 잘못하고 엮어서 다시 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내 실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언가를 건드린다는 것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계기가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힘을 갖는다. 나는 어쩌면 지속되는 무력감과 우울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반발심에서부터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작은 계기로 나는 일어서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 중 일부는 나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학원 생활은 실패가 없고 도전할 기회만이 주어진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결국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나날이다. 특히 실험실에 속해있다면 더욱 그렇다. 실험실 사람들과는 매일매일 봐야 한다. 어떤 때는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나와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신경 쓰이기 마련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험의 실패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원인을 함께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에 함께 있게 될 사람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과 실험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원 진학에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대학원도 작은 사회이기에 이 점을 무시했다간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나의 대학원 생활은 스스로 힘들었던 일을 제외하면 대인 관계에서는 큰 마찰 없이 보내고 있다. 이것은 아마 주위 사람들의 배려와 더불어, 이들이 나와 맞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럴 수 있다. 나의 실패에 대해 크게 꾸짖으며 핀잔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함께 도와주려는 사람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대학원 생활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제외한다면,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진학하느냐에 따라 생활하는 환경이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밤늦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올 수도 있다는 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과 경험이 졸업 후 취직 등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지도 모른다. 다른 점에서 대학원의 장점이라 한다면, 생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식물이 시들어가면 그거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멈춰서서 왜?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때로는 마트에서 열매나 야채, 채소를 보며 진단을 내려보려고 멈춰서 있다. 과실에 나 있는 병반을 보고 추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그냥 지나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도 조금이나마 전문성을 띠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나의 대학원 생활이 나쁘지 않고, 때로는 즐겁다고 느끼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BK21에 속하며 받게 되는 혜택과 행사 참여를 통해 받게 되는 상금 또는 장학금은 대학원 생활을 더 안정감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학비에 대해서 큰 근심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을 고민하는 학부생도 있을 것이며, 대학원을 고려하지 않는 학부생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선택을 흑백처럼 맞다,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학원을 선택하는 길이 결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가장 좋은 청춘의 시기를 대학원이란 곳에서 2년 동안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혹은 대학원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는 학부생도 있을 것이다. 고민하는 것은 옳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면 실험실이 존재하는 전공은 실험실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대학원을 오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대학원은 나중에 졸업하였을 때 적어도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 중 하나일 것이다. 너무 고민이 되는 사람이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학원을 체험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인생은 짧지 않고 걸어갈 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다. 미래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은 이 길을 다져놓는 예비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층 높은 시대를 이끌어갈 책임을 수반하며,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는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공,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학문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발견이 발표되며 이전 이론에 대한 반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배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삶이 학문의 길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계속해서 공부하며 앞선 사람들의 연구를 쫓아가 보고 싶다. 나는 내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고, 대학원에서 얻게 된 가장 큰 덕목이자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원 생활은 짧게 느껴질 수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간은 상대적이니 당연하다.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대학원이란 곳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장소가 무엇인가는 반드시 배우고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다. 이것은 전공에 대한 지식일 수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아니면 자신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직 대다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다.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누군가는 대학원 진학이 바로 취직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길이라고 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학원 진학이야말로 살아가면서 도전해볼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에 대해 배우기에 4년이란 시간은 짧다. 실제로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전공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좋으나, 또 다른 수단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단이 되어도 상관없다. 대학원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 아니다. 이곳은 또 다른 도전의 장소이고, 내게는 성공을 향한 발판이다. 나는 내 성공을 이곳에서 이루어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디든지 저마다의 성공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